

김오수 전 검찰총장, '이순신 삶' 조명한 책 출간

공직자 총무공-이순신의 삶으로부터 배우는 공무원의 길

김오수 | 동아아시아 | 2만6000원



30년 넘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재직하신 공직자 출신 법조인이 430여년 전의 '구국 영웅' 총무공 이순신의 인생여정을 되새기며 이 시대의 공직자 상을 제시한 저서를 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

도 삼수 지역의 군관(종9품)으로 임명되었던 것처럼 김 변호사 역시 31세인 1994년 인천 지검 검사로 공직을 시작했던 것은 시공을 초월해 우연한 인연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강진 고금도 총무사 인근 지청에 부임하여 동료 공직자들과 함께 총무사를 찾아 참배하고 총무공이 남긴 글귀를 현판으로 걸어놓거나 검찰총장실 복도에 거북선의 모형을 전시해 놓는 등 총무공에 관한 여러 가지 일화를 남기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총무공의 발자취를 정면으로 마주함으로써 공직자가 나아가야 할 길이 보다 뚜렷해지는 기분이 들었다"면서 "이것은 나만이 아닌 수많은 공직자들도 함께 느꼈으면 하는 바람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출간 취지를 밝히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 책을 낸 또 하나의 이유로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과의 관계가 최근 들어 심상치 않다고 느낀 점을 들고 있다. 그는 "일본은 지난 역사에서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었던 나라"며 "하지만 여태까지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수시로 역사를 왜곡하거나 우리나라를 비난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지난 역사에서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었던 나라"며 "하지만 여태까지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수시로 역사를 왜곡하거나 우리나라를 비난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4년 현재, 그러한 일본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심상치 않다"고 우려하고 "이러한 때 야말로 일본의 무도한 침략에 맞서 백성들을 지켰던 우리 역사의 가장 위대한 공직자, 총무공을 생각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어린 시절부터 역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많았고 공직자가 된 이후는 공직자의 표상으로 항상 총무공을 생각하며 근무했다"라면서 "배우고 싶고 따르고 싶었던 마음의 스승 총무공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30년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썼다"고 밝혔다.

한편 김 변호사는 영광군 흥농읍 출생으로 고향에서 국민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했다. 광주대동고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해 제20기 사법연수원생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3년을 강원도 화천에서 군법무관으로 근무했고, 1994년 인천지검 검사로 임관해 장흥, 서울, 부산, 수원, 광주, 원주, 성남, 청주, 세종, 진천, 과천 등지에서 검사와 부장검사, 차장검사, 지청장, 검사장, 법무연수원장, 법무부차관, 검찰총장 등으로 근무했다.

이후 전남대학교 연구석좌교수로 있다가 2024년 5월부터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박찬 기자



절해고도에 갇힌 육체, 진리 통한 정신으로 풀어내다

흑산도 하늘길

한승원 | 문이당 | 1만6000원



신화와 샤머니즘을 통해 독특한 문학 세계를 그려 온 한승원 작가.

그의 대표적인 장편 소설 '흑산도 하늘길'이 출간 20여년 만에 개정판으로 찾아왔다. 정약전의 유배 생활을 배경으로 육체를 가두고 정신을 풀어 놓는 자유자재의 지혜를 통한 본질적 삶과 치열한 고뇌와 역경을 다룬다. 정약전이 유배됐던 흑산도 현장을 서정적인 문체로 묘사하며 궁극에 이르고자 한 인물의 삶을 그려낸다.

정조의 서거 후 순조가 즉위하고 소론과 남인의 당쟁이 신유박해라는 천주교 탄압으로 비화하면서 정약전은 천주교인으로 지목받아 신지도로 유배된다. 이후 황사영의 백서사건이 일자 유배지를 흑산도로 옮기게 된다. 그에게 흑산행은 나라의 끝장이자 지옥행이었다.

공포와 절망에 휩싸이며 소흑산도에 당도하자 그는 간섭과 감시를 피해 대흑산도로 들어가려는 아전의 권유를 뿌리치고 소흑산에 머물기로 결심한다. 그곳에서

강진으로 유배된 정약용과 서간을 주고받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생활한다.

작품은 본인의 이름보다 다산 정약용의 형으로 더 알려진 손암 정약전을 주인공으로 그가 유배지에서 겪는 한 인간의 고독, 슬픔, 좌절, 불안, 기다림, 인내를 다루며 희망과 사랑, 믿음의 가치를 작가 특유의 절제되고 깊이 있는 필치로 구현했다.

특히 정약전의 상징이자 삶인 '승률조개'는 소설을 관통하는 주제다. 한 인간을 모든 것로부터 단절시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공포스러운 공간 흑산도. 그는 그곳에서 혼돈과 분열 속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갱신시켜 본질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얻고자 고뇌한다.

흑산도라는 절해고도에 육체가 갇히고 진리에 도달함으로써 자유자재하고자 한 정약전의 치열한 몸부림은 소설을 통해 본질적 궁극에 이르고자 한 저자의 삶과 그 궤적을 같이한다. 장흥 울산에서 해산토굴을 짓고 스스로 갇혀 살았던 작가가 '소설가로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답을 제기한다. 동시에 한과 애환이 절절히 끊는 토속적 공간에서 사족사와 인간의 욕망이 뒤엉키는 현장 묘사는 그가 왜 한국 문단의 거장인지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박찬 기자

"묵언은 말로 된 샷된 것을 부순다"

김택근의 묵언

김택근 | 동아아시아 | 1만9800원



'김대중 자서전'과 '새벽: 김대중 평전'의 저자 김택근은 시인이자 '문장의 고수'로 알려졌다.

김 작가는 경향신문에서 30년간 편집기자로 일하며 얻은 단단한 논리와 시적 정서로 중언부언한 설명보다 본질에 집중한다. 그의 글은 시대를 뛰어넘는 통찰의 기록처럼도 읽히는데 이는 현실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십 년간 그의 칼럼은 힘으로 얼룩진 정치를 꾸짖고, 국가적 참사에 희생된 이들을 호명했으며, 잃어버린 시절과 자연을 노래했다.

새로 출간된 '김택근의 묵언'은 독자들에게 성찰의 시선을 권하는 인문 에세이다. 책의 제목에서도 볼 수 있는 '묵언'의 사전적 뜻은 '말을 하지 않음'이다. 김 작가는 묵언의 의미에 대해 "말로 지는 샷된 것, 헛된 것을 부수자는 의미"라며 "말이 극도로 오염된 시대에 묵언은 평화이자 성찰"이라고 강조했다. 작품에서 '샷된 것'은 주로 '폭력'을 나타낸다. 오랜 역사 속에 사라지지 않고 내재한 광범한 폭력의 줄기와 시대적 현상을 짚으며 학살과 같은 국가적 폭력도 묘사한다.

책은 1부 '네 죽음을 기억하라', 2부 '이름도 병이 든다', 3부 '말이 모든 것을 말

에 희생된 이들을 호명했으며, 잃어버린 시절과 자연을 노래했다.

새로 출간된 '김택근의 묵언'은 독자들에게 성찰의 시선을 권하는 인문 에세이다. 책의 제목에서도 볼 수 있는 '묵언'의 사전적 뜻은 '말을 하지 않음'이다. 김 작가는 묵언의 의미에 대해 "말로 지는 샷된 것, 헛된 것을 부수자는 의미"라며 "말이 극도로 오염된 시대에 묵언은 평화이자 성찰"이라고 강조했다. 작품에서 '샷된 것'은 주로 '폭력'을 나타낸다. 오랜 역사 속에 사라지지 않고 내재한 광범한 폭력의 줄기와 시대적 현상을 짚으며 학살과 같은 국가적 폭력도 묘사한다.

책은 1부 '네 죽음을 기억하라', 2부 '이름도 병이 든다', 3부 '말이 모든 것을 말

한다', 4부 '그러므로 나는 당신입니다', 5부 '김대중의 마지막 눈물' 등 총 5부로 구성됐다.

점점 사라져 가는 소중한 가치들과 현실의 세태를 주로 다루는 1·2부와 국내 정치에 갇힌 샷된 것을 고발하고 평화와 생태에 주목하는 3·4부를 지나 마지막 5부에서는 저자가 인연을 맺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관련된 글로 추린다.

전북 정읍 출신인 김 작가는 이번 에세이를 통해 '조국 근대화'와 '정의사회 건설'이라는 국가 폭력의 다른 이름 아래 희생돼 왔던 소중한 생명들에게 위로를 건네고 폭력의 실체를 발가벗겨 폭력 유발자들을 상기한다.

박찬 기자

걸음마다 비우다

김학배 | 알렙 | 1만8000원

고흥에서 태어난 저자는 30년이 넘는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는 의식으로도 여행 여행을 택한다. 서울에서 고흥까지 520km를 열댓살 만에 걸어가며 기록한 여정을 담은 인문 에세이다. 느린 걸음 속에서 만나는 자연과 역사,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삶과 세상을 재발견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차로 4시간 30분이면 가는 거리를 왜 걸었을까. "속도가 느릴수록 생각은 깊어진다" 저자의 대답이다. 책은 단순한 이동을 넘어 자기 성찰과 자연과의 교감으로 이어지는 여정을 그린다. 각기 다른 사연을 품고 있는 길 위의 동행자들과 고흥에 도착해 맞이한 감동까지 걸음마다 피어나는 삶의 사색으로 빠져보자.



괴물을 기다리는 사이

스테파니 푸 | 곰출판 | 2만6800원

오랫동안 자신을 괴물처럼 여겼던 복합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삶을 되찾고자 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가 국내 출간됐다. 아동기의 가정폭력, 유기 등 가혹하고 치열했던 여정을 담아 내면을 조우하는 회고록이다. 저자는 중국계 말레이인으로 어릴 적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왔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심각한 가정폭력과 학대를 당했던 불우한 환경을 이겨내고 어느새 저널리스트이자 유명 팟캐스트 프로그램의 프로듀서가 된다. 심리상담을 받은 지 10년 만에 '복합 PTSD'를 겪고 있다는 진단을 받고 과거를 따돌려 거짓된 해피엔딩에 기대어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축소사회 대한민국

정선렬·엄혜용 | 행;북 | 1만7800원

지난해 기준 출산율 0.69명.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저출산국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비롯한 복합적인 영향으로 국내 인구 구조는 심각하게 붕괴하고 있다. 인구 소멸이 당도할 미래, '생존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책이 출간됐다. 현직 사회교사인 저자들은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축소사회'를 교육·세대·사회 구조라는 키워드로 분석한다. 수도권과 지방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 세대·성별 갈등, 국방 불안정, 지방 소멸, 사회보험 붕괴 등 사회 문제를 진단해 현실을 파헤친다. 해법 모색을 위해서 정부, 기업, 개인이 협력해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jnibo
진일보 인스타그램
#호남대표미디어 #진일보 #전남일보_뉴스서비스